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의 발전방안

전 경 석

통상산업부 부품산업과 서기관

한국 전자부품산업은 가전제품용 부품을 주 대상으로 하여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한 채 조립위주로 발달하여 왔으나 90년대 들어 지나친 임금상승과 가전업계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국내 범용 전자부품산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구조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

반면 최근 전자기술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산업전자 및 통신관련 부품산업이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부품산업이 가전용 부품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변화가 국내 전자부품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방안은 과거와 같이 제품사양별 정부의 직접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간접적 또는 직간접 혼한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며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WTO출범 이후 민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ITA-I의 체결에 이어 ITA-II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의 업체간 경쟁과 협력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전자부품산업을 기술지향형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형태도 다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부품산업 발전방안은 첫째로 국산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수시장을 지켜야 할 분야, 둘째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틈새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분야, 셋째로 향후 전자시장을 주도할 첨단 핵심부품으로 개발할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 번째 분야는 주로 가전용 범용 부품이 해당된다. 이 분야에서 국내 부품업체가 내수시장을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분야 국내시장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에 직면해 있어 국내 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산업 및 통신산업이 확대되면서

범용부품의 모듈화 및 집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 부품업계에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국내 범용 부품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신규 응용기술이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자산업진흥회, 전자부품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임국가의 덤핑공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산업진흥회 및 전자공업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부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 여러가지 경쟁제한적 요소들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정책의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부품업계가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를 벗어나고 선진국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비록 틈새시장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고급기술 제품이므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 저항에 직면한다거나 대만 등 경쟁국과 기술확보 경쟁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강화하고 기술도입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연구소도 설립을 확대하는 등 선진기술 습득을 다양한 경로로 강도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첨단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분야는 선진국이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로 기술도입 및 합작 등의 방법으로는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수 없고 우리업계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이다.

21세기 디지털 전자시대의 3대 핵심부품으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소형 2차전지를 들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부품업계가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HDTV의 핵심부품인 「Decoder IC Set」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였고, 새로운 DVD Audio 규격을 개발하여 세계표준규격으로 제안하는 등 멀티미디어시대에 세계시장을 주도할 분야의 핵심부품 개발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그동안의 조립가공산업 단계에서 창조적기술산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국내 부품산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으나, 우수한 해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신속히 확산시켰고, WTO이후 국내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활로를 모색한 데 있다.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는 한국의 전자부품산업은 최근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기술경쟁력에 바탕을 둔 첨단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첨단부품산업 그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앞서 밝힌 나머지 두 분야의 부품산업도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부품 개발만을 강조하면서 범용부품산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은 몇몇 첨단 전략부품의 개발만으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과 더불어 GGF, WSC, ITA 등 부품산업의 새로운 시장질서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기술협력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위치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